

광주교육청, 올해 다문화 정책학교 확대

학교 89% 다문화학생 재학

유치원 등 5곳 추가 운영

통·번역 서비스 추진도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다문화정책 학교를 대폭 확대한다.

다문화 예비학교는 3개교에서 5개교로, 다문화 연구학교는 1개교에서 2개교로 늘린다. 다문화 유치원도 2개원을 늘려 총 7개원을 운영한다.

광주시교육청은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올해 목표는 '어울림으로 다(多)함께 행복한 광주교육'으

로 설정했다.

시교육청은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들이 고려해 이런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는 지난 2015년 1899명에서 2016년 2404명, 2017년 2609명으로 증가했다. 초등학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다문화 학생도 증가 추세다. 현재 다문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초·중·고교는 모두 287교로 전체 학교 수(322교)의 89%를 차지한다.

시교육청의 올해 다문화교육 추진방향은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다문화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유관기관 연계강화를 통한 우리지역에 맞는 다문화교육지원 기반 다지기' 등 세 가지다

주요 추진과제는 다문화 정책학교 확대다. '통합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문화유치원이 2개원 늘어난다.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 예비학교는 3개교 5학급에서 5개교 7학급으로, 효율적인 다문화교육 운영모형을 확산하는 다문화연구학교는 1개교에서 2개교로 확대한다. 모든 학생에게 다문화이해·반편견 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 중점학교는 7개교를 유지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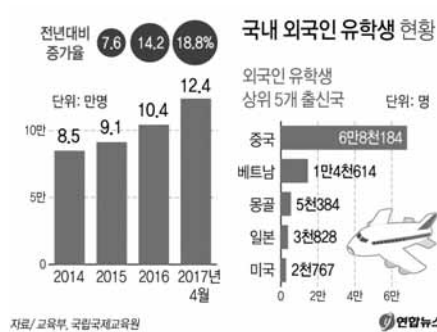
학교 관리자를 비롯해 모든 교직원·학부모에 대한 연수 강화, 지역다문화가족

지원센터·지역대학·광주국제교류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도 추진된다. 이중언어(교육 지원, 글로벌 브릿지 사업(다문화 학생 잠재력 개발 국제적 인재로 육성), 교육언어 통·번역 서비스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성남 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장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통합과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우리 모두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

국내 외국인 유학생 12만명

역대 최고...3년째 증가세



자료: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지난해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원장 송기동)이 교육부 통계자료 등을 취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2만3858명으로 전년 4월 대비 18.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은 7만232명이었고 나머지 5만1826명은 비학위과정에 다니고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줄었다가 2015년 7.6%, 2016년 14.2% 등 3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57.5%가 수도권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나머지는 충청권 13.8%, 부산·울산·경남권 9.7%, 강원·대구·경북권 9.5%, 호남·제주권 9.3% 등이었다.

이들의 전공은 박사과정의 경우 공학계 36%, 인문사회계 34%, 자연과학계 18%, 예체능계 8%, 의학계 4%로 집계됐다. 석사과정은 인문사회계 71%, 공학계 14%, 자연과학계 7%, 예체능계 7%, 의학계 1%였고 학사과정은 인문사회계 69%, 공학계 14%, 예체능계 11%, 자연과학계 6%였다.

/연합뉴스



전남대가 최근 개최한 '겨울캠프'에서 중국 만결조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대 제공>

중국 고교생들, 전남대서 한국 문화 맛보기

전남대학교(총장 정병석)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산동성 치박시와 학생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대는 중국 산동성 치박시에 위치한 만결조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5명을 초청해 최근 4월 간 일정으로 '겨울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전남대학교와 중국 산동성

만결조양고교 사이에 맺은 교류협정에 따라 전남대 학부 과정에 입학하게 될 만결조양고교 한국어 국제반 학생들을 위한 예비체험 성격으로 열렸다.

한편, 중국 만결조양고교는 올해 1월부터 국제반을 개설해 한국어 수업을 운영중이며 전남대학교는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강사와 교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겨울캠프'에 참가한 만결조양고교 학생들은 전남대학교 캠퍼스(광주·여수) 투어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미래의 유학생생활을 설계하고 광주·전남 지역 문화를 미리 체험했다.

한편, 만결조양고교는 산동성 치박시에 있는 만결그룹 소유의 사립학교로 4000여 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재학생 대상 한국어 반을 운영하는 등 한국과의 교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한의학과 전원 한의사 시험 합격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재학생 전원이 2018년 제73회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5일 동신대 한의과대학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시행된 제73회 한의사 국가시험에 동신대 재학생 62명이 응시해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

동신대 한의학과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연속 한의사 국시 재학생

100% 합격을 달성한 바 있다. 이런 성과의 비결은 우수한 교육 환경과 교육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다.

나장수 동신대 한의과대학장은 "동신대는 광주, 순천, 목포에 3개의 부속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목동 소재 협력병원인 서울동신한방병원까지 활용에 임상 교육 환경이 뛰어나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전제 교수들이 재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상시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대학 지원을 받아 함께 공부하는 ASP (After School Program), 교학상장, 졸업동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동기 부여를 해 주며 체계적으로 국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신대 한의과대학은 우수한 교육 여건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지난 2016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위원회의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5년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4차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드론 전문가 교육과정



호남대 '드론 전문가 교육 과정' 참가자들이 드론을 날리는 모습. <호남대 제공>

"드론으로 1인 미디어 도전해볼래요"

호남대 전문가 교육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가 최근 호남대 IT스퀘어 대강당 및 문화체육관에서 교직원 및 통합뉴스센터 학생 기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드론 전문가 교육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전문가 교육은 기업물류 관리, 미디어 콘텐츠 제작, 작업 대행 등 일자리 영역뿐 아니라 취미 생활의 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

됐다. 호남대라팔라스쿨 조세현 선생을 초청해 진행된 교육은 드론의 제원과 활용 분야, 관련 법규 그리고 촬영기법 등에 대한 이론부터 체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신승희(유아교육학과 2년) 학생기자는 "미처 생각지도 못 한 우리 생활 곳곳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며 "1인 미디어시대에 드론을 이용한 뉴스 콘텐츠 제작에 도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재영 전 권익위 부위원장, 광주대 부총장 취임

광주대학교 부총장에 박재영(사진)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이 취임했다. 박 신임 부총장은 최근 학교 행정관 회의실에서 열린 임용장 수여식에서 "사람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면서 "광주대학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요소를 많이 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용장 수여식에는 김혁중 광주대 총장과 학·처장단, 교무위원들이 참석해 박 부총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김 총장은 "정부 주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분이 부총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 교직원



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면서 "부총장 취임

을 계기로 광주대학교가 한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부총장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영국 버밍엄대학교 대학원 수료, 한양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외부초빙강사 등 여러 대학에서 강의 활동했으며 전남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정부수석실 행정자

치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